

음악과 드로잉 영상이 전하는 위로

윤연우 작가 '드로잉 콘서트'...24일 공간 '집'

김태승씨 참여 1집 노래 11곡 들려줘
김철휘씨 드로잉 영상 제작·상영
광주극장 '굿즈' 제작·개인전도 준비



윤연우 작가가 심은마·정정혜 작가와 작업한 광주극장 굿즈.



심어송라이터 김태승, 뮤직비디오 제작자 김철휘씨와 '드로잉 콘서트'를 여는 윤연우 작가.

지난 2017년 지역에서 진행된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다. 1980년 오월을 지켜 본 존재들을 이미지화한 엽서에 글을 써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전국 각지로 보내주는 기획이었다. 당시 엽서에 실린 회화나무와 전남도청, 검은새를 그린 이는 윤연우(34) 작가였다.

전남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윤 작가는 광주극장을 즐겨 찾았던 이들처럼 반갑게 알은체를 할 인물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광주극장 대표소를 지켰던 그녀는 '집 자부신' 등 광주극장이 진행한 다양한 영화제의 포스터를 그렸고, 80살이 넘는 광주극장 기념 에코백 디자인도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광주극장만을 위한 '기념품(굿즈)'을 디자인해 내놓았다.

심은마·정정혜 디자이너 등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합쳐 '소작당'이라는 이름으로 편지치 세트, 엽서, 핀 냇지, 주머니 등 모두 4종을 제작했다. 지금 광주극장 입구 로비에 놓인 굿즈들은 광주극장을 아끼는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광주

극장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뜻을 같이 한 디자이너들과 제품을 만들었고 극장 관계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극장 바로 옆 건물 2층에 작은 공간을 얻어 작업을 진행 중인 그녀가 이번에는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색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신곡 발표회와 드로잉 영상이 어우러진 '드로잉 콘서트-반복되는 밤'이다. 오는 24일 오후 8시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심어송라이터 김태승, 비디오 제작자 김철휘씨가 함께한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는 기획이다.

밴드 '김과리'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인 김태승은 자신의 일상 이야기가 담긴 첫 솔로 1집 'I'm not ok'에 실린 11곡을 라이브 음악으로 들려주며 윤작가의 다양한 드로잉 작품들은 밴드 '어메이징 비주얼'에서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김철휘씨가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준다. 윤작가는 2016년 김태승씨의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하며 인연을 맺었다.

공연 장소 '집'은 그녀가 직접 골랐다. 전남여고 맞은편

에 자리한 '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딱딱한 공연장 대신 폭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으로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했다.

이번 공연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https://tumbbug.com/repeatingnight>)을 통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에게는 티켓, 앨범과 함께 김씨의 뮤직비디오 캐릭터인 바독이를 주인공으로 한 드로잉 에코백과 드로잉 마스크티프, 드로잉 포스터를 증정한다.

그녀의 작업은 다채롭다. 색실을 짜놓은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인 테피스트리(tapestry)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그녀는 서울에서 그림책학교를 다녔고 인물화를 모은 책 '역할극'을 도쿄 아트북 페어에 출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데일리 잡지 편집 디자인 일도 맡았다.

올해 계획은 동물을 소재로 작업한 테피스트리 작품을 중심으로 개인전을 여는 것이다. 그녀가 제작한 테피스트리 소품은 입소문을 타고 대구 작은 책방 '더 풀락' 등에서 판매 중이다. 공연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남윤과 '코리안 솔로이스츠' 'ACC 브런치 콘서트' 첫 무대

27일 극장2 비발디 '사계' 등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대모' 김남윤이 오는 27일 'ACC 브런치 콘서트' 올해 첫 무대를 꾸민다. 이날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김남윤은 그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코리안 솔로이스츠'와 '해설이 있는 올 댓 챔버'를 진행한다.

김남윤은 경희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며 백주영, 신지아, 임지영 등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키워낸 클래식계의 대스승이다. 그는 1974년 스위스 티보바가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원장이기도 한 김남윤은 차이코프스키, 시벨리우스, 쾨엘러지베스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채동선 음악상(1987), 육관문화훈장(1995), 금호음악스승상(2006), 대원음악상 특별 공헌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이 이끄는 코리안 솔로이스츠. <ACC 제곡>

상(2013) 등이 있다.

김남윤을 중심으로 실력과 음악인들이 모인 코리안 솔로이스츠는 1998년 창단 이후 2016년 재창단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실내악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이들 챔버 앙상블은 노르웨이 작곡가 할보르센이 헨델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파사칼리아'를 현악으로 편곡한 곡으로 무대를 연다. 이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사장조 작품 1048'을 무대에 올리고 비발디 '사계'를 차례로 선보인다.

김선희·김하영·박수빈·김원혜·한규현·김지윤·김혜자·

박지훈(바이올린), 정승원·황어진·최하람(비올라), 임재성·박기홍(첼로), 김두영(더블베이스)가 출연한다.

매달 수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브런치 콘서트에 참여하면 공연 뒤 커피와 샌드위치 등이 제공된다. 앞으로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8월14일)과 만도네오니스트 고상지(8월28일),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와 기타리스트 박주원(9월25일),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작가 배순탁(10월30일)도 만날 수 있다. 일반석 2만5000원·사이드석 1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리뷰/연극 '한뼌 사이'



오는 3월10일까지 연극 '한뼌 사이'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유쾌한 사랑 그린 로맨틱 코미디 한뼌 거리 청춘들의 좌충우돌 '밀당'

유·스퀘어 3월 10일까지 무대

소극장 연극은 서른 평(100㎡) 남짓한 무대에 오를 배우의 팽방울과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오는 3월10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한뼌 사이'는 연기자들과 관객 간 거리가 그야말로 '한 뼌' 정도로만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로맨틱 코미디'를 내건 이 연극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청춘 남녀 4명의 사랑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았다. 최근 찾은 공연에서는 통통 튀는 연기로 무장한 김상아(마혜리)·이해찬(아한길)·한충의(벌티맨)가 열연했다. 극단 파릇이 제작한 이 작품은 노루뿔씨가 연출을 맡았다.

오는 3월 공연 2주년을 맞는 '한뼌 사이'는 서울 대학로를 시작으로 수원·대전·전주 등지를 거쳐 순회 공연을 열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네 청춘의 이야기는 대부분 오피스텔 3층 복도라는 공통의 공간에서 펼쳐진다. 어쿠스틱 기타의 잔잔한 감성이 묻어나는 박원일의 노래 '5분만'이 흐르며 무대의 문을 연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5명의 주인공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무성 파노라마로 보여준다.

관객이 앞으로 펼쳐질 '리브 라인'을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301~304호에 살고 있는 청춘들은 '한뼌' 거리에 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다.

열연 검사 '마혜리'·이혼전문변호사 '아한길'·신입 사회부 기자 '금나리'가 나란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스포츠 도

박에 빠져 사는 '리처드 흥'이 이사오면 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야기는 경마 도박, 불법 사채, 사기 등 자극적인 소재들로 가득하고, 아침드라마처럼 막장으로 치달지만 극은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마혜리의 대학 선배 아한길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그녀에게 가짜 애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리처드 흥에게 빠져 신세포기까지 쓴 그의 정체를 짐차 알아간다.

악역인 '장사장'을 포함해 아한길의 어머니·미화원·대학 선배·사기꾼·경찰 등 성별과 세대를 넘나드는 한충의 팔색조 연기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인물의 특색을 살리는 효과음과 조명 처리도 완성도를 높였다.

'결말이 나긴 할까' 걱정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급하게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어 허무함이 남았다. 결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야기의 큰 흐름을 해치지 못했다. 아울러 상대 배우를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하면서 관객에게 호응을 유도한 대목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다.

"인생은 유턴"이라는 극 중 인물 금나리의 말처럼 지친 일상에서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면 한 뼌쯤 볼 만한 작품이었다.

한편 '한뼌 사이' 표를 제시하면 오는 3월14~24일 공연하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 관람 때 할인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상 관람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3시 공연(월요일 휴무). R석 4만원, S석 3만원, '한뼌 사이'석 2만원. 문의 062-360-84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100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롤케익 증정)

2019 Dinner Show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